대주그룹 회장 영장 청구

지역경제 미증유 파장 우려

대주그룹의 위기는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지향하는 대한조선 건립사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주그룹 협력업체는 물론 건설·금융권 등 사회 전반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몰고와 지역경제가 미증유의 파장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해남군 화원면 대한조선 단지. 대한조선의 해남조선소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15년 연 매출 10조원에 인구 20만명의 배후도시가 조성돼 산업지도를 확 바꾸게 된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해남 조선소 외자유치 중단 위기

◇초대형 프로젝트 무산되나=대주그룹은 오는 2015년 연매출 10조원, 배후인구 20만명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조선프로젝트를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왔다.

이후 대한조선은 올 7월 선박블록 공장 준공에 이어 8월 제 1도크 가동식을 가졌다. 또 내년까지 자자체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자본금 총액을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과정을 밟아왔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초대형 도크 2기 준공과 함께 오는 2010년까지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선소에 투입,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한편 나주시 크기의 배후도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주물량도 지난 10월 현재 28억 달러·31척에 달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45억 달러·50척 이상의 수주도 거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그룹 총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좌초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룹 신인도 추락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외자유치 협상중단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허 회장은 현재 골드만삭스 등과 6천억원 규모의 대한조선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선박용 엔진공장 합작투자, 중국 조선소 및 시멘트사 프로젝트, 뉴질랜드 초고층 건축계획 등 해외사업들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와 함께 대주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토 서남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주그룹은 J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많은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대주 컨소시엄(대주건설 등)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만여 아파트 입주 대기자 타격

◇입주민들에도 치명상 남길 듯=대주건설의 전국 사업장은 54개에 달한다.

이번 파장으로 이들 사업장과 함께 1만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대기자, 3천세대의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특히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분양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위기극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1천5백여 협력업체 줄도산 오나

◇지역경제 파장은 어디까지=1981년 이후 광주·전남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대주그룹은 15개 계열사와 5천672명의 임직원, 연매출 2조 2천억원을 기록하면서 광주·전남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력기업인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어온데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심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룹내 상호출자구조, 연대보증, 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주주인 허 회장의 부재 및 대주건설의 파산은 전체 계열사의 연쇄적인 도산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또 협력업체 1천500여개와 2만여명의 고용인원, 그룹 총여신 6조4천억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실 등도 지역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자산 매각 등 자구책 총력

◇자구노력 진행되고 있나=대주그룹은 금융기관과의 직접 협의 등을 통해 채무 상환 연기 약속을 받는 등 자금난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계열사와 자산매각, 증자 및 투자유치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을 모색 중이다.

대주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총수의 구속은 사실상의 경영활동 마비를 의미한다"면서 "유동성 극복 등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수의 정상집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경제 중심축 무너지면 큰 혼란"

■지역 경제계 호소문 뭘 담았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광주·전남 경제단체와 대주건설 협력업체가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대주그룹의 총수가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룹의 자금경색은 물론 경영활동이 마비돼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주그룹 사태로 인한 파장은 과거 덕산그룹의 충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최대한의 관용과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허 회장의 구속은 사실상 그룹의 와해와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며 "개인기업을 옹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막중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을 고려, 대주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1천500여개에 달하는 대주건설 협력사들은 "대주건설이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로 중대한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협력사들이 최악의 사태를 맞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대선 한달앞…막판 3대 변수

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선 판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우세 속에 진행됐던 이번 대선 구도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전격적인 출마 선언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송환,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등이 맞물리면서 예측불허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막판 대선 변수를 조명해 본다.

① BBK 의혹 수사 李 굳히기냐 판도 재편이냐 '분수령'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송환에 따른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막판 대선 판세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지형은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우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실질적 소유 여부다. 여기에 이명박 후보의 다스 소유 여부와 이 후보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이 소위 BBK 3대 의혹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검찰수사 결과 3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최악의 경우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검찰수사 결과 이 후보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번 대선은 싱거운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후보가 불안하다며 '3수 도전장'을 낸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움직임도 별다른 파괴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범여권과 한나라당은 사생결단식의 정치공방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② 범여 후보단일화 성사 지지부진…효과 '안개속으로'

범여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단일화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일단 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지난 12일 후보단일화와 통합을 함께 이루는 원샷 통합에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나선 데 이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의 로드맵대로 후보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분과 전대 시기 등 합당의 조건을 놓고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1차 후보단일화 성사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기에 문국현 후보와의 2차 단일화 전망은 더욱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정동영 후보 측은 오는 25일을 목표로 잡고 물밑 협상을 강화하고 있으나 문 후보 측은 "무원칙한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를 향한 범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막판 'U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 후보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 대선 구도가 격변하면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성사 및 효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후보단일화 자체가 국면을 바꿀 결정적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③ 틈 완주 여부 BBK 의혹 수사 결과 따라 판가름

여론조사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대선 완주 여부도 대선의 최대 변수다. 이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 막판 대선 판세는 3강 구도의 혼전 양상을 띠거나 이명박 후보의 우세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지지' 언급 이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및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중도 포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완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후보의 연루가 밝혀진다면 이회창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로 부상하면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수사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면 중도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거나 차기 정부로 수사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완주한다면 대선 구도는 막판까지 3강 구도를 보이며 혼전 양상을 띨 수도 있지만 중도 포기를 선언한다면 범여권 후보는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